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이진균 요셉, 이지은 아네스
다음주 독서: 이진숙 수산나, 이제니수 로사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다음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번주 미사해설: 김태진 하상바로, 우명희 카타리나
다음주 미사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김보미 로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제 2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86
교무금: \$ 340

합 계: \$ 526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성당 사무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시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복음 이어서)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우애가 깊은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아우가 황금 두 덩이를 주었습니다. 아우는 금덩이 한 개는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아우가 갑자기 금덩이를 강물 속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형이 그 이유를 물으니 동생이 금을 가지기 전과는 달리 금을 가지고 있으니 형님을 꺼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강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형도 “네 말이 옳다.” 하며 금덩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형제의 아름다운 우애를 다룬 옛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는 우애를 깨뜨릴지도 모를 금덩이를 버림으로써 형제의 우애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보물은 금덩이가 아니라 바로 형제의 우애였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그것을 당신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물이 있는 발을 발견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발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 보물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버려야 얻을 수 있고 포기해야 내 것이 됩니다. 텅 빈 것이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진 보물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보물을 얻기가 힘든 것은 채우고 모으는 것보다 비우고 버리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17 주일]

2011 년 7 월 23 일

<제 1 독서> 열왕기, 3,5-6 7-12

<제 2 독서> 로마서, 8,28-30

화답송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뉘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저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을 깨우치나이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복음, 13,44-52<또는 13,44-46> 짧은 독서시 <>부분 생략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을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오늘의 성가] 시작: 403 봉헌: 340 성체: 344 파견: 2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수단의 돈보스코’ 이태석(1962-2010) 세례자요한 신부에게 얼마 전 국민훈장의 최고등급인 무궁화장이 추서됐습니다.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를 통해 이 신부님의 삶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신부님은 어린 시절 부산 송도성당에서 알로이시오(1930-1992) 신부님의 복사를 서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제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미국 메리놀회 출신인 알로이시오 신부님은 6.25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한국에서 사제생활을 시작해 평생을 불우한 소년·소녀, 행려인 등 ‘가난한 아이들의 아버지’로 사셨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성당에서 본 다미안(1840~1889) 신부님의 일대기 영화는 이 신부에게 더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미안 신부님은 외딴 섬에 갇혀 지내는 한센인들을 희생적으로 돌보신 분입니다.

의대를 마치고 군의관 제대 후에도 사제의 꿈을 접지 못한 이 신부님은 가족의 만류에도 살레시오회에 입회해 2001년 드디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선택합니다. 가난과 기아,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교사, 의사, 음악가, 건축가로 일인다역을 하신 것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이태석 신부님은 투병생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톤즈의 아이들에게 빨리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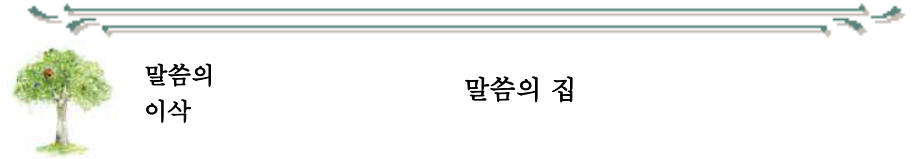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 나라를 발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발을 삽니다(마태 13,44). 한 조각농이 밭을 갈다가 보물이 가득 든 상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 보물을 다시 땅에 묻고는 집으로 돌아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 묻힌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를 묵상하게 합니다. 귀한 보물의 가치는 누구나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아닐까요?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돌맹이를 진주인 양 착각하고 부둥켜안고는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이태석 신부님, 알로이시오 신부님, 다미안 신부님’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로마 8,28)고 고백합니다. 신앙인이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이웃을 위해 내어 놓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허영엽 마티아 신부

† 공지사항

- 오늘 미사 후에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들은 미사 후 7시까지 김보미 로사 자매님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캠프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말씀의 집

참으로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무 생각도 없이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영락없이 별별 생각이 다 기도를 방해해 버립니다. 하다못해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일이 번쩍 떠오르고, 쓰고 있는 원고 말미를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일 강의 때 입을 옷까지 떠오르면서 머리는 잡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입으로는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거리에 나가 서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짐작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입술을 물지만 몇 초가 지나고 나면 벌써 내 마음은 드라마 사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느님겐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그저 나는 이 정도의 여자라는 생각이 저도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알곡의 기도가 아니라 가라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 하나는 고쳐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 노력이 나의 기도라는 것을 하느님께선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 큰 딸 켄마가 지난주에 견진성사를 받았습시다.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하느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시다. 결혼해서 오래 성당의 문을 열지 않아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어느 날 켄마는 성당의 문을 열고 새벽기도를 가고 저는 가슴이 설레어 뭐라고 언급조차 조심스러웠습시다. 동생 마리아 막달레나와 세실리아와 같이 새벽기도에서 만나면 저는 어디를 대고도 큰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그 광경만 봐도 저는 배부르고 행복의 절정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 켄마가 견진을 받을 때 저는 밥이 아니라 “감사”라는 말로 종일 배불렀지요. 세상에 이런 황홀경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여자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 빗줄기가 다 은총의 비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딸들이 가정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는 웃음을 나누는 딸들이 된다면 하느님도 웃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오직 생각의 집을 만들고 사고의 원천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는 말씀을 제 딸들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가라지와 알곡을 알아보는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제 딸들은 사랑받는 하느님의 딸로 외롭지 않으리라 저는 바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묵주기도는 여전히 잡생각으로 엉키고 설킨 기도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묵주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모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죽기까지 묵주를 잡겠지만 저의 악과 잡생각이 말씀의 집을 허물면 저는 그 자리에 천막이라고 쳐 놓고 다시 기거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게 말씀이 오고 있으니까요.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